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

최윤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Single Mother's Economic Stres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of Perceived by Parents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Youn-Jung Choi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주제어 : 여성 한부모, 경제적 스트레스, 모-자녀 관계 만족도,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ingle mother's economic stress i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perceived by parents and whether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 in the proces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path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as follows: First, single mother's economic stress has negative effects on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has positive effects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t was proved that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exer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refore, existent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have full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e implications to improve social competence of single mothers' children were discussed.

key words : Single Mother, Economic Stress,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Mediating Effect

1. 서론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가족유형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족이 한부모 가족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족에서 11%정도를 차지하고 있고[1], 남성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 한부모 가족이 2.8 배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여성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다[3]. 이는 혼자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로 인해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 등을 받고 이로 인해 구직이 어렵고, 구직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의 형태를 가지기 어려우며, 임금도 남성에 비해 1/3정도만을 받고 있다[4]. 낮은 가구 소득은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3].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자녀와의 시간을 갖기 어렵게 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양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여성 한부모 자녀는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5]. 인간은 태어나 자마자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성장과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들이 확장되며,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자기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되는 자기개념이 성립된다.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인 발달을 하기 위한 자기개념의 요소 중에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유능감이다.

사회적 유능감이라는 용어는 White(1960)가 ‘주위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로 처음 지칭하여 사용하였다[6].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을 통합하는 능력이다[7]. 사회적 유능감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핵심역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인관계역량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은 공격성, 문제 행동 등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8]. 발달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유능감은 후천적인 학습이나 환경을

통한 경험 등을 통해 얻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되어 집이 보고되고 있다[9]. 주관적 경제적 압박감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10].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지적 능력 뿐 아니라 친구관계, 학교에서 행동문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11].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사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12].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 자녀가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즉, 여성 한부모는 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 자녀라고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며 성공적인 발달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에 의하면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 요인을 야기하고, 2차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 요인들과 심리적 결과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14].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소득의 부족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과정에 관련되어지는 제 3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 저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가족의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한 가족환경 영향에 의해 위협이 줄어들 수도 있다[15].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가족환경에 의해 그 방향성이 변화될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면 가족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적, 발달 단계상의 스트레스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16]. 사회적 유능감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7].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18]. 인간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19]. 가정 내 가족자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가족구조보다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3]. 자녀의 발달은 부모-자녀 관계의 산물이며,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게 된다[20].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 행동의 기본이며, 자녀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의 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13], 부-자녀 간 보다 모-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친사회성이나 공격성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21], 따뜻하고 지지적인 어머니-자녀 관계는 자녀의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낮추고[22], 부모-자녀 친밀감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3].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23],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24]. 부모가 해주는 또래에 대한 대화나 조언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다[6]. 부모와 공감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고,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기회가 증가한다[25]. 부모와의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한다[26].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자녀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27]. 즉,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고[26],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27]. 이렇듯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8]. 하지만 부모의 물질 자원이 결핍되어 있더라도 가족 내 자원이 충분하다면 청소년이 긍정적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29].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교우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자녀와의 관계 같은 가정 내 관계자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적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31]. 즉,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이점이 자녀의 교육적 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자녀의 교육 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10,11], 부모-자녀 관계[25,32], 자녀의 적응[15,27] 관련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세 변인들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합해서 작용하는 경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다차원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좀 더 정교하게 확인하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실천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 한부모의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로서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206명이다. 표집절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여성 한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의표집 하였다. 조사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233부가 회수되었으나 결측값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Harter(1982)의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전경숙(1992)이 번안 구성한 척도 중 사회능력 9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가 .71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교우관계, 사회능력(예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Conger 등(1992) 개발하고 오승환(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885로 나타났다. 의복비, 교통비, 집세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고,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인 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척도는 Byun(1999)이 개발하고 변경화(1999)가 타당도를 입증한 모-자녀 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30문항이며 신뢰도가 .87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예로 나는 자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심리 내적(예로 나는 내 자녀와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 관계 측면(예로 내 자녀들을 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여성 한부모 특성에 대해서는 SPSS 22.0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AMO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후에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대로는 30대 미만 91명(44.2%), 40대 80명(38.8%), 50대 35명(16.9%)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고졸이하(57.2%), 전문대졸(24.2%), 대졸(18.4%)로 고졸 이하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36.4%), 차상위 계층(31.6%)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0%정도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녀 수는 1명(56.3%), 2명(35%), 3-4명(8.8%)순으로 과반수 정도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여성 한부모의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66의 평균값을 보였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6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4점 만점에 3.20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Divison		Frequency(N)	Percentage(%)
Age group	under 30	91	44.2
	40-50	80	38.9
	over 50	35	16.9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118	57.2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50	24.2
	college graduate	38	18.4
Economic level	basic livelihood recipient	75	36.4
	lower income group	65	31.6
	others	66	32.0
Number of children	1	116	56.3
	2	72	35.0
	3-4	18	8.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in variables

	min.	max.	M	SD
economic stress	1.00	3.25	1.66	.55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2.33	4.60	3.26	.42
social competence	1.56	5.00	3.20	.64

3.2 경로모형분석

3.2.1 측정모형 검증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고 검토하는 절차로 적합도 지수를 통해 알아보게 된다.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χ^2 과 GFI, RMESA를 사용하였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해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표준적합지수 NFI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2 이 11.114이고 그 확률치가 .134로 모델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FI, TLI, NFI의 지수들이 모두 .9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ESA가 .054로 나타나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Table 3. Estimates & Goodness-of-fit index

Model fit	χ^2	df	p	GFI	RMESA	TLI	NFI
	11.114	7	.134	.990	.054	.971	.975

3.3.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결과를 경로도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고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은 Tabl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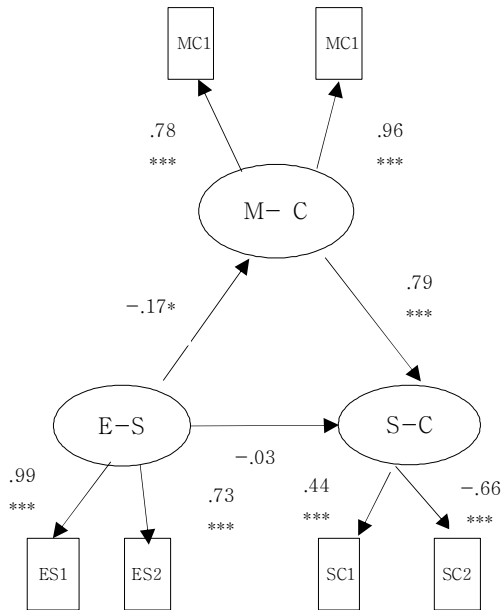


Fig. 1. Mediation Model

분석결과는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beta = -.173, p < .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거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beta = .789,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Table 4. Structural Analysis of Model

Path	B	β	S.E	t값
P-C Rel Sat ← Econ Stre	-1.498	-.173*	.643	-2.331
Soci Com ← P-C Rel Sat	.035	.798***	.007	4.942
Soci Com ← Econ Stre	-.013	-.035	.032	-.416

*p < .05 **p < .01 ***p < .001

3.3.3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효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에서부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경로에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beta = .138, p < .01$) 38)로 하여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beta=.798, p < .001$)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통해 총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모-자녀 관계 만족도($\beta=.798, p < .001$), 경제적 스트레스($\beta=.138, p < .01$)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The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standard variable	predictive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C Rel Sat	Econ Stre	-.173	-.173	
Soci Com	Econ Stre	.138		.138
	P-C Rel Sat	.789	.789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에서 통계량은 2.11이며 양측검증 $p=0.03$ 이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거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효과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beta=.789, p < .001$)가 나타났고, 전체효과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beta=.789, p < .001$), 경제적 스트레스($\beta=.138, p < .01$) 순으로 나타나,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10,29]. 또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설명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저하시킨다는 연구[10-1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만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를 통해 미친다고 제시한 것[30]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제외시켜 분석한 결과 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단선적으로 연구하기 보다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그 관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를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한다면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여성 한부모의 낮은 소득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므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여성 한부모의 탈빈곤 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하

고 성인지 정책으로서 정책성을 명확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33]. 현재는 여성 한부모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지원이 없으며, 지자체별로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하거나 이러한 지원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시적인 고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승진 기회의 박탈이나 임금 차별의 점진적인 완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과 기업문화의 변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 가족의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개입방법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양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여성 한부모의 시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25,34,35].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기술에 대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성 한부모 가족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갖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존재함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 된 기간이나, 한부모 이유와 같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자녀의 나이, 성격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7). KOSTAT-SPP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8). Number of single parent families.
- [3] S. G. Lee, J. A. Yoo. (2015). On What Days Are Adolescents Happier?: The Daily Effect of Intimacy with Parents on Happiness and Its Variation by Household Income and School-Leve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 3-23.
- [4] K. J. Kim. (2015). Coping Strategies for Reduc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Youths' Thoughts, Feelings, Behavior, and Health. *Studies on Korean Youth*, 21(3), 5-31.
- [5] H. S. Lee, K. C. Han, G. B. Jeon.(2013).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Single-parent Female Head of Household Economic Stress. *Korea Contents Association Review*, 13(13), 174-183.
- [6] A. R. Park & J. S. Baik. (2014).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dolescent Child -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ment*, 12(3), 49-62.
- [7] L. G. Katz & D. E. McClellan.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NAEYC.
- [8] G. A. Corredor, A. Justicia-Arraez, M. Romero-Lopez & A. Benavides-Nieto. (2017). Longitudinal study of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on behavioral problem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7, 479-495.DOI: 10.1016/j.sbspro.2017.02.093
- [9] M. O. Caughy, L. Franzini, M. Windle, P. Dittus, P. Cuccaro, M. N. Elliott & M. A. Schuster. (2012). Social Competence in Late Elementary School: Relationships to Parenting and Neighborhood Contex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 1613-1627. DOI.org/10.1007/s10964-012-9779-2.
- [10] J. I. Kim. (2009). The impact of economic pressure on school life and problem behavior of poor children: Focusing on family risk variables and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nrgative parental role. *Joura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8, 7-43.
- [11] V. C. McLoyed.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DOI.10.1037/0003-066X.53.2.185.
- [12] H. E Brophy-Herb, R. E. Lee, M. A. Nievar, G. Stollak. (2007).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Relations to family characteristics, teacher behaviors and classroom climat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34-148. DOI.ORG/10.1015/J.APPDEV.2006.12.004.
- [13] H. S. Kim. (2016). The Th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Life Happiness, mediated by 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Multi-Group Analysis o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55, 1-29.

- [14] L. I. Pearlin & A. Bierman. (2013).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into the stress process*. In C. S. Aneshensel, J. C. Phelan, & A. Bierm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325–340). New York: Springer
- [15] D. K. Kribel. (2002). *Parenting as a cumulative risk for academic and social competence in adoptive children*. Doctorial Dissertation, School of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ryland.
- [16] S. H. Cho. (2010). *A Study on the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with divorced family*. Doctori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17] M. L. Hoffman.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607–622. DOI.ORG/10.1037/0012-1649.11.5.607.
- [18] D. A. Cohn.(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2(11), 152–162. DOI:10.2307/1131055.
- [19] M. Y. S.ong. (2018).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ther’s Parenting Efficacy, Mother’s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0(1), 139–162.
- [20] R. D. Conger, X. Ge, G. H. Elder, F. O Lorenz, R. L. Simons.(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DOI:10.2307/1131401.
- [21] G. Attili, P. Vermigli, A. Roazzi.. (2010).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eer statut, and the quality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 multidimensional scaling approach. *European Psychologist*, 15(1), 23–33. DOI.ORG/10.1027/1016–9040/0.000002.
- [22] K. Klein & R. Forehand. (2000). Family processes as resource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 exposed to a constellation of socio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53–65. DOI: 10.1207/S15374424jccp2901_6
- [23] C. S. Cheung & E. M. Pomerantz. (2011).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s academic lives in the US and China: Implications for children’s academic and 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82, 932–950. DOI:10.1111/j.1467–8624.2011.01582.x.
- [24] S. Y. Lee. (2012). The Perceptions of the Home Environment and Social Competence of Gifte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1), 15–37.
- [25] I. Hutchdy. (2005). Children’ talk and social competence. *Children and Society*, 19, 67–73. DOI.10.1002/CHI.856.
- [26] L. Steinberg.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DOI.ORG/0.1111/1532–7795.00001.
- [27] H. K. Kwon. (2017). A study on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parenting efficacy: Focusing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1(1), 83–104
- [28] Y. M. Song. (2011). The Effects of the special purpose highschool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tudy competence on school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3), 647–669.
- [29] P. K. Coleman & K. H. Karraker.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DOI: 10.1002/imhj.10048
- [30] J. Y. Hyun & K. K. Kim. (2015).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at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varying relationship according a family struc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2), 125–154..
- [31] J. D. Teachman, K. Prach & K. Carver. (1997). Loe–income femal single parents’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ir social relation network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3–24
- [32] B. N. Kim. (2010). The influence of family income on adolescents’ academic achiv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betwee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Journal of Far East Social Welfare*, 6, 7–27.
- [33] J. W. Han. (2014).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Policy through Gender Analysis of One–Parent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99–109.
- [34] B, J, Seo1 & W. H. Kim. (2017). Converged Influence of the Academic Stress Recognized by Teenagers on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283–293. DOI:10.15207/JKCS.2017.8.7.283
- [35] H. S. Lee. (2016).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163–172, DOI:10.15207/JKCS.2016.7.4.163.

최윤정 (Youn-Jung Choi)

[중요인]



- 2004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 박사)
- 2005년 2월 : 광주대학교 교수
- 2007년 2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가족, 정신보건
- E-Mail : mikyj@hanmail.net